

# 나라빚 1천127조 '역대 최대'...1년새 59조 늘었다

### 2023 국가결산보고서...GDP 대비 첫 50% 돌파 1인당 채무 2천179만원...국가부채도 113조 증가

지난해 나라빚이 60조원 가까이 늘면서 1천100조원으로 불어났다.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보다 가파르다 보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 채무)는 1천127조7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년 결산(1천67조4천억원)보다 59조4천억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가 1천92조5천억원

으로, 1년 전보다 59조1천억원 늘었다. 일반회계 적자보전(54조3천억원), 에너지·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약(1조1천억원) 등에 기인한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3천억원 늘어난 34조2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오는 6월 이후 지자체 결산에서 확정된다.

2023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지난해 결산 국가채무는 7조6천억원 줄었다. 국가채무는 2016-2018년 600조원대, 2019년 723조2천억원이었다가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2020년 846조6천억원,

2021년 970조7천억원, 2022년 1천67조4천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 김명중 재정성과심사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나타났다. 전년(49.4%)보다 1.0%포인트(p) 증가했다.

결산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건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

019년 30%대를 기록하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 2022년 49.4%로 늘었다.

1인당 국가채무는 2천178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채무를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5천171만3천명)로 나눈 값이다.

지난해 국가부채는 2천439조3천억원으로 전년(2천326조원)보다 113조3천억원 늘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제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했고, 공무원·군인 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천억원 늘었다. /연합뉴스

## 투데이경제



### 전남농협, 담양서 영농지원 발대식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11일 "담양군 수북면 일원에서 농촌인구 감소·고령화로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는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이병노 담양군수, 최용만 담양군의회 의장, 담양지역 농축협 조합장, 광주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또 전남농협 임직원과 광주대학교 대학생 봉사단 35명이 함께 재능기부와 농촌 봉사활동 실천을 다짐했으며 이후 인근 블루베리 재배농장을 찾아 영농폐기물 수거 등 농작업을 도우며 구슬땀을 흘렸다.

박종탁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은 "최근 고령화와 농촌 인구감소로 농업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농협은 농촌인력증가센터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에게 2만명의 인력증가를 목표로 영농현장에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 임곡농협·삼도농협 '상호금융대상' 우수상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11일 "임곡농협과 삼도농협이 '2023년도 상호금융대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상호금융대상은 농협중앙회에서 금융환경 변화 대응 역량 제고와 경영 내실화를 위해 전국 1천11개 농·축협을 대상으로 매년 유형과 사업규모별로 재무·고객·사업·학습 등 신용사업 전 분야를 평가, 120개소 우수 농·축협을 선정하는 상호금융부문 시상제이다.

농협중앙회 소속 임곡농협과 삼도농협의 우수상 수상은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어려운 농촌 현실 속에서 거둔 성과로 의미를 더했다. /김현지기자



연화 약세...34년만에 달러당 153엔 돌파  
엔/달러 환율이 153엔대까지 치솟으며 1990년 6월 이후 약 34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진은 11일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연화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반도체 호조에 4월 초순 수출 22% 증가

4월 초순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의 호조에 힘입어 20% 넘게 증가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도 호조를 보인 가운데 대미(對美) 수출액이 대중(對中) 수출액을 웃돌았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4억4천1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늘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7.0일)보다 0.5일 많았다.

월간 수출액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데 이어 이달에도 호조를 이어가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5.5% 늘었다. 반도체 수출액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5개월째 두 자릿수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두 달 연속 줄어든 승용차 수출액은 이달 초순에 8.6% 반등했다. 자동차 부품(27.2%)과 정밀기기(35.9%), 가전제품(71.7%), 컴퓨터 주변기기(84.7%) 등도 증가율이 두 자릿수 이상이었다.

반면 선박에 대한 수출은 87.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37.4%)과 중국(20.8%)에 대한 수출 모두 20% 넘게 늘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35억2천200만달러로 대중 수출액(32억2천700만달러)보다 많았다. 지난해에 이어 대미 수출이 대중 수출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10일 수입액은 184억2천800만달러로 5.8% 증가했다.

원유(19.2%)와 반도체(24.3%), 기계류(22.1%) 등의 수입이 늘었다.

반면 가스(-11.3%)와 반도체 제조장비(-34.3%), 석탄(-4.9%), 승용차(-28.3%) 등은 줄었다. /연합뉴스

## 공공건설 시공평가 때 안전관리 비중 강화

### 중대건설사고 발생·건설사고 미신고시 감점

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공공 공사 시공 평가 때 안전·품질관리 평가 점수를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지침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공사 시공평가는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공공 건설공사의 시공이 적정한지 발주청이 평가하는 제도다. 준공 이후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으로 시공평가의 안전관리 비중은 15점에서 20점으로, 품질관리 비중은 12점에서 15점으로 각각 높아진다.

또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비계, 동바리,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 중 사고 예방을 위한 평가 항목(4점)이 신설됐다.

사망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현장 재해율로 평가했던 것을 사망자 수로 변경했다.

변별력이 없는 민원발생 항목(2점)은 삭제됐다.

지금까지는 공기 단축 때 우수 평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예정 공기를 준수했을 때도 우수 평가를 받도록 했다.

또 중대한 건설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8점의 감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사고를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2점을 감점한다.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 실적에 따른 가점(0.5점)을 신설했다.

시공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회에 금융·향응을 제제한 경우 전체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 푸바오 대신...중 판다기지 방문 여행상품 출시

하루터는 중국 판다기지를 방문하는 '청두 4-5일 패키지여행' 상품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4박5일간 판다 테마파크, 위롱중화 자이언트판다원 선수관기, 두장엔 기지 등 최대 3곳의 판다 기지를 방문하는 상품이다.

위롱중화자이언트판다원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곳으로 중국 전체 야생 판다의 10% 이상이 서식하는 판다의 낙원이라 불린다.

최근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반환된 푸바오 역시 위롱중화자이언트판다원 선수관기지에 격리 중이다.

다만 푸바오는 일반 공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채 격리 중인 상태라 이번 여행상품을 통해 만날 수 없다.

선택 관광 사전 예약 시 위롱중화자이언트판다원에서 직접 판다의 집을 청소하고, 대나무 먹이를 만드는 사육사 체험을 할 수 있다. 국제인증 봉사활동 수료증도 발급한다. /연합뉴스

<h2>토지매매 (전원토지) 농막전문</h2>	<h2>상가 매매 (상무지구)</h2>	<h2>경매교육 [ 특수전문반 기초반, 중급반 ]</h2>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780평 → 매매 1억2천만 (임야)</li> <li>담양군 대덕면 (창평시장 5분) 302평 → 매매 2억1천 (농막포함)</li> <li>장성 상오리 (장성댐 5분) 230평 → 매매 2억3천만 (농막포함)</li> <li>담양 무정면 (광주 20분) 853평 → 매매 5억 (개발토지)</li> <li>광주 서구 쌍촌동 (도로) 496평 → 매매 5억 (매년 보상나옴)</li> </ol>	<p>▶ 상무지구 중심 상업지구</p> <p>유흥가능 (룸, 노래홀, 홀덤펀)</p> <p>6층 (전용 60평) 7층 (전용 40평)</p> <p>★ 전용 100평 ★ (분양160평)</p> <p>(보3천, 월수익 350만)</p> <p>▶ 시세 - 13억</p> <p>▶ 급매 - 7억 (용4억)</p>	<p>* 특수 전문반 모집 (10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초반 (기초부터 실전)</li> <li>중급반 (실전부터 ~)</li> <li>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li> <li>투자반 (투자가능한분)</li> </ol> <p>▶ 경매 물건 추천 ◀</p> <p>광주 전남</p> <p>광산구 신항동 (상가주택) ▶ 감정가6억4천 → 최저가 3억6천      남구 진월동 (상가주택)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8억3천      광산구 쌍암동 (상가빌딩) ▶ 감정가39억 → 최저가 27억      북구 용봉동 (카센터) ▶ 감정가 6억 → 최저가 6억      동구 학동 (상가빌딩) ▶ 감정가 4억4천 → 최저가 4억4천      광산구 비아동 (토지, 446평) ▶ 감정가 11억6천 → 최저가 9억3천      광산구 도산동 (토지, 94평) ▶ 감정가 3억4천 → 최저가 2억4천      장성군 삼서면 (의료시설) ▶ 감정가 37억 → 최저가 26억</p>
<p>010-6670-9800</p>		<p>062-382-5500</p>